

## 생명과학 기술의 발달과 인간 생명 - 독일 SF 영화 <파라다이스>에 나타난 인간수명 거래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정영호\*

### I. 서론

인간의 몸과 그 일부 그리고 유전자가 가공되어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을까? 실제로 인간의 몸과 유전자는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생의 전 시기에 걸쳐 상품처럼 거래되고 있다. 일례로 체외수정을 시술하는 스페인의 한 불임클리닉에서 가임기 여성의 난자는 대략 1,000유로에 매입되었다. 그곳의 체외수정 성공률은 유럽의 평균보다 월등히 높다. 그 이유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대생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지불하고 난자를 채취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미국의 사설 클리닉은 난자 기증자에게 평균 4,500달러를 지불한다. “운동능력과 음악적 재능이 뛰어나고 키가 큰 금발의 기증자”(Dickenson, 2012, 14)는 더 높은 가격을 제시받는데, 최고 5만

---

\* 단국대학교 유럽중남미학부 독일학전공 초빙교수

달리에 이르기도 한다.<sup>1)</sup> 난자 외에도 “신체조직의 상품화(Kommodifizierung von Körperstoffen)” (Lettow, 2015, 33)는 생의학과 생명공학 분야에서 이미 진행 중이다.

이처럼 인간 생명이 거래되고 자본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생명자본주의(Biokapitalismus)”(Ebd.)에 관한 논의는 전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다. 특히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생명공학 분야가 미래 “바이오경제(Bioökonomie)”(Ebd.)를 선도할 전략산업으로서 여겨지면서 국가 간 경쟁도 치열하다. 하지만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한 경제성장을 우선하는 현 상황에서 인간 생명의 가치를 중시하고 생명윤리에 대한 보다 깊은 논의를 기대하는 것은 요원해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 독일의 보리스 쿤츠(Boris Kunz) 감독의 영화 <파라디이스(Paradise)>(2023)에서는 생명과학 기술이 인간 생명을 금전적으로 다룸으로써 벌어지는 디스토피아적 상황을 보여준다. <파라디이스>에 등장하는 인간 수명 이식이라는 혁신적인 생명공학 기술은 인간의 수명을 거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 결과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수명을 돈으로 구매하여 젊음을 되찾고, 반대로 가난한 이들은 자신의 수명으로 금전적 이득을 얻지만 그만큼 생을 일찍 마감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영화 <파라디이스>에서 과학기술 문명의 발달을 통해서 발생하는 수혜는 부자들을 향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에게 생명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sup>2)</sup>

1) 스페인의 어느 대학 휴게실에 “도와주세요! 생명을 선물하세요!”라는 광고 포스터가 게시되었다. 이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불임클리닉에 난자를 팔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광고였다. 특히 ‘생명을 선물하세요’라는 문구가 감성을 자극할 수 있지만 난자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다. 이는 난자를 구매하고 판매할 수 있는 클리닉을 중심으로 소위 ‘이기 제조’ 시장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Vgl. Dickenson, 2012, 14f).

2) 독일에서 사이언스 픽션(이하 SF) 장르는 창작과 연구의 영역에서 최근에 큰 관심을 끌고 있다. SF 장르는 미래 사회에 펼쳐진 기술적 사회적 발전을 다루며, 인공지능, 우주 비행과 정복, 기후 위기와 관련된 상상력이 주요한 소재이다. 이를 통해서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미래 사회에 미칠 영향을 확인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갈등과 문제에 대해서 고민한다. 이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에 제시된 상황과 현재의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등장하는 사

이러한 인간 생명의 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생명과학 기술의 발달과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서 인간 생명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현대 생명과학 및 공학 기술의 발전과정과 그 이론적 배경을 확인할 것이다. 무엇보다 인간 생명이 물질적 차원으로 다루어지고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활용된 방법론적 환원주의와 인간에 대한 이원론-기계론을 중심으로 과학 기술주의적 사고를 살펴보겠다. 이를 참고하여 쿤츠의 영화 <파라다이스>에서 개별 인간의 사회적 경제적 위치에 따라서 인간수명이 어떻게 도구화, 상품화될 수 있는지 확인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인간 생명이 빈부의 차이로 인해서 위협받는 상황을 인식하고, 인간 생명에 관한 윤리적 원칙을 중심으로 인간 생명의 본질적 가치와 인간 존중의 의미를 되짚어 보겠다.

## II. 과학기술의 발달과 인간 생명의 위기

생명과학은 생명현상과 생물의 기능을 연구하는 학문이다.<sup>3)</sup> 과거에 생명

---

회문제를 대비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을 수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쿤츠의 SF 영화 <파라다이스>에서는 생명공학 기술의 발달과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인간 생명이 어떻게 다루어질 수 있는지 비판적으로 고찰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쿤츠의 영화는 국내외에 학술적 연구는 아직 시도되지 않았으며 언론매체를 통한 비판적 시선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SF 장르에 대한 국내 연구는 현대 과학기술과 인간의 정체성 문제(천현순, 2020), 독일의 군국주의를 SF 단편으로 서술한 귄터 쿠네르트의 작품에 대한 분석(이근호, 2022) 그리고 에른스트 윙어의 SF 소설 『유리별』에서 기술이론의 변화에 대한 연구(최동민, 2021)를 통해서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이근호의 연구에서는 SF 장르가 포스트모더니즘과 결합해서 독일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이근호, 2022, 112f 참조). 그리고 천현순은 논문 ‘현대 과학기술과 하이브리드 상상력’에서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인 과학적 실험”(천현순, 2020, 68)에서 유전학과 생명윤리의 문제를 다루었다.

- 3) 생명과학과 혼용하여 사용되기도 하는 생명공학은 생물체 혹은 세포 구성 요소를 이용하는 응용 생물학으로서 생물학, 화학, 유전학, 면역학, 발생학, 생화학적 지식에 공학 기술을 연계한 것이다. 최근 연구분야에 있어서 생명과학, 생명공학, 분자 생물학과 유전공학은 연구내용이 중첩되기도 하며 유전공학은 생명공학의 일부로 간주되기도 한다. 게다가 생명과학은 자연과학적인 범주를 넘어서 생명의 의미를 중심으로 철학, 윤리학, 종교까지 학문적 범위를 넓혀서

과학은 농업, 축산업, 수산업에 응용되었고 현재는 생명공학, 분자 생물학, 유전공학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인간을 대상으로 한 생명과학은 과거에 비해서 그 연구범위가 다양해졌으며 생명을 다루는 기술의 발전 속도는 가히 예측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다. 이를 고려할 때 생명과학 및 공학 기술이 인간 생명과 관련해서 근래에 어떠한 발전 과정을 보였는지 파악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현대 생명과학의 발달은 1950년 이후 유전 물질의 본체가 DNA라는 것이 밝혀지며 본격화되었다. 곧이어 분자 수준에서 유전인자를 다루는 유전학으로 연구범위가 확대되었고, 동시에 인간의 유전 정보를 활용한 생명공학적인 응용이 시작되었다. 이후 1960년대 들어서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미생물을 이용한 생화학적인 실험으로 생명현상의 메커니즘을 밝히는 성과를 보였다. 그 결과 인간을 포함한 고등동물의 개체 발생과 분화, 노화, 암과 면역체계 그리고 중추 신경의 작용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어서 1970년대 초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개발되었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2001년 미국과 영국 등 6개 국가가 참여한 국제 컨소시엄 ‘인간 게놈 프로젝트(Human Genome Project)’와 미국의 생명공학 벤처기업 ‘셀레라 제노믹(Celera Genomics)’은 인간 게놈 지도를 완성했다. 특히 생명과학 및 생명공학 기술의 발달은 1978년 영국에서 세계 최초의 시험관 아기 루이스 브라운(Louis Brown)의 탄생과 1997년 생물학계에서 불가능하다고 여긴 체세포 복제를 성공시킴으로써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태어난 복제 양 돌리는 이론적으로 기술적으로 인간 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상징했다. 이렇듯 단기간에 이루어진 생명과학의 발달과 성과는 인간에게 향상된 삶과 생명 연장에 대한 기대를 높였으며 유전병이나 난치병으로 힘겨워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이와 같은 성과와 미래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얻기 위해서 행해진 실험 대상과 방법에 관해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특히 생의학이나 생명

---

사용하기를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이렇듯 생명과학은 그 개념을 일의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정도로 넓은 범위로 쓰이고 있다(홍석영, 2006, 67f 참조).

공학 분야의 실험 대상은 측정 및 조작을 통해서 수치화됨으로써 인간의 몸 역시 물질적 차원에서 다루어졌다. 이때 인간의 몸은 생물학적 유전학적 기능적인 측면에서 관찰되고 취급되는 유기체에 불과했다. 즉 인간의 몸이 “용이하고 통제 가능한 방식으로”(정재우, 2015, 128) 취급되고, 물질적 차원에서 변형되고 조작될 수 있는 환원주의적 방식으로 이용되었다는 것이다.

인간학, 사회학, 심리학이 생물학으로 환원되고, 생물학은 화학으로, 화학이 물리학으로 환원되어, 결국에는 기초 소립자로 이루어진 ‘미지의 세계’만이 남고 각 수준이 지닌 고유한 가치는 무효화 되고 파괴된다(Sgreccia, 2016, 209).

이처럼 복잡한 대상을 보다 기초적인 원리나 개념으로 설명하는 환원주의는 방법론으로서 과학적 지식을 얻는데 분명 효과적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능주의적 방식으로 인간의 몸이 다루어짐으로써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인간의 생명이 도구로 취급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

이와 같은 인간 생명을 대하는 인식은 고대 플라톤과 근대 데카르트가 주장한 인간의 몸에 관한 이원론-기계론적 관점에서 그 사상적 토대를 확인할 수 있다. 플라톤과 데카르트의 인간에 대한 이원론-기계론적 관점은 생의학과 생명공학 분야의 수많은 활동을 정당화하는 이론적인 근거로 인용되기도 했다(Vgl. Jonas, 2001, 120f). 이들의 견해에 따르면 인간을 이루는 중심은 정신이며, 이를 통해서 인간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플라톤은 인간의 몸과 정신은 우연히 결합된 것이며 몸에 정신이 간혀 있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인간의 몸이 참된 인식에 이르는데 어떤 직접적인 기여도 하지 않는 무의미한 존재로서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 인간의 정신이 정화되고 이데아에 이르기 위해서 인간의 몸은 벗어나야 할 장애물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진다(노양진, 2013, 58f 참조)

몸으로 인해서 참된 것을 볼 수 없게 되고 말지. [...] 우리가 언제고 믿기를 순수하게 알려고 한다면, 우리는 몸에서 해방되어야만 하며 사물들을 그 자체로 혼 자체에 의해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가 열망하는 바의 것이며 또 사랑하는 사람들인 바의 것인 지혜는 이 논의가 보여 주듯, 우리가 죽게 되었을 그때에야, 우리의 것이 되지, 살아 있는 동안은 아닌 것 같아. [...]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되도록 몸과는 전혀 같이 지내지도 함께하지도 말며, 몸의 본성으로 영향을 받는 일도 없게 하되, 신이 몸소 우리를 자유롭게 해 줄 때까지는, 우리가 자신을 몸에서 순수한 상태로 유지할 때에나 말이지(Duke, 1995, 66d-67a).

데카르트 역시 플라톤과 같은 맥락에서 인간의 본질과 존재를 정신에서 찾는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인간의 몸은 정신에 감각적 자료를 제공하고 정신의 명령을 받아 작동하는 마치 기계와 같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몸은 정신과 무관한 기계적 합성물이며 물질적인 가치 외에 ‘나의 존재’에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단순히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동시에 내가 생각하는 존재라는 사실 이외의 어떤 것도 나의 본성 또는 본질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나는 나의 본질이 오직 내가 생각하는 존재라는 사실에 있다고 정확하게 추론할 수 있다. 내가 나에게 매우 밀접하게 결합된 몸을 가질 수 있다(오히려 확실히 갖고 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한편으로 내가 단지 사고하는, 연장되지 않은 존재인 한 나는 내 자신에 관한 명석 판명한 관념을 갖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몸이 단순히 연장되고 사고하지 않는 존재인 한 나는 몸에 대한 판명한 관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나는 참으로 몸으로부터 구분되며, 몸이 없어도 존재할 수 있다(노양진, 2013, 61 재인용).

이러한 플라톤과 데카르트의 주장은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사실적 실증적 사고와 실험에 기반한 과학주의적 사고에 이론적 근거로 인용되기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인간의 몸은 실험실에서 필요와 목적에 맞게 대상화되어 마치 공장에서 기계를 이용해서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 내듯이 활용되었다(김상배,

2018, 78f 참조). 이와 같은 과학주의적 기술주의적 사고는 유전공학 분야에서 인간의 몸을 부품처럼 활용하여 인간 복제에 이용하려는 논의에 이르기도 했으며(박승찬, 2022, 30 참조), 인간의 유전 정보를 질병 퇴치에 활용하고 범죄 예방에 활용하지는 주장으로 확대되기도 했다(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2008, 137ff 참조).

이와 같은 인간의 몸에 대한 이원론·기계론적 관점과 이를 바탕으로 발전한 과학 기술주의적 사고와 달리 카를로 로케타(Carlo Rocchetta)는 인간의 몸은 외부 세계와 소통하는 매개체이며 외부와 상호작용함으로써 나를 표현하고 다양한 체험을 가능케 한다는 인간의 육체성을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육체성은 몸보다 넓은 개념이며 인격을 형성하고 내면성에 영향을 미치며 세상의 다른 존재와 관계를 맺는데도 관여한다(정재우, 2015, 144 참조). 즉 인간의 몸은 생의학과 생명공학 분야에서 방법론적으로 다루는 유기체가 아닌 본질적이며 결코 생물학적 기능적 합성물로 환원될 수 없는 존재인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인간의 몸이 가진 내재적 가치를 강조한 엘리오 스크레차(Elio Sgreccia)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의 몸은 값을 매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량화할 수도 없고 교환의 대상도 될 수 없다(Sgreccia, 2016, 190f). 즉 인간의 몸은 우월한 가치를 가진 인격체로서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며, 인간에 대한 존중은 몸을 배제해서 생각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에서 과학 및 기술주의적 사고는 마치 생명과학과 생명공학 분야의 발전이 과학기술 문명의 진보를 상징하며, 이는 곧 인간에게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환상으로 이어졌다.<sup>4)</sup> 이를 반영하듯 “생의학과 생명공학에 대한 자본주의적 관점의 논의(Diskussion

4) 심지어 과학 기술주의자들은 과학기술이 생명 문제를 결정하고 생명을 마음껏 다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문명의 진보라는 말로 유전공학의 힘을 빌려 이상적인 인간을 만들 수 있다고까지 말한다. 하지만 우리는 2005년 황우석 교수의 배아줄기세포 연구 조작 사건을 통해서 생명과학에 대한 맹신의 위험성을 경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문환경은 여전히 생명공학 연구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며 엄청난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올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박승찬, 2022, 30f 참조).

um die kapitalistischen Aspekte von Biomedizen und Biotechnologien)“는 이미 진행 중이며 최근에 “생명가치(Biowert), 생명자본(Biokapital), 생명경제(Bioökonomie)”(Lettow, 2015, 33)라는 용어에서 볼 수 있듯이 생명을 다루는 과학 및 기술 분야는 경제적 부가가치와 이윤을 끌어낼 수 있는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인간 생명을 위하고, 또한 그러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생명과학 및 생명공학 분야에서 윤리의식이 결여된 채 기술적 발전에 집착<sup>5)</sup>하거나 소위 시장 논리를 따를 때 비인간적이고 불평등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는 혁신적인 과학기술이 장밋빛 미래를 언급하며 인간 생명을 도구로 이용하고 자본의 탐욕에 종속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인류를 위해서 개발된 혁신적인 과학기술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인간의 욕망을 채우고 시장 논리로 인간 생명을 거래할 수 있을 때 야기될 수 있는 상황과 문제점들을 독일 SF 영화 <파라다이스>에서 살펴볼 수 있다.

### III. 인간 생명의 상품화: 인간수명 거래

2023년 7월 23일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Netflix)를 통해서 전 세계에 배포된 쿤츠의 영화 <파라다이스>는 2주 남짓 기간 만에 3,120만 회에 이르는 조회 수를 기록했으며 전 세계 비영어권 영화 순위에서 3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sup>6)</sup> 영화 <파라다이스>에서는 근미래를 배경으로 현재까지 인류가 접하지 못한 새로운 생명공학 기술이 등장한다. 생명공학 기업 에온(Aeon)의 대표 조피 타이센(Sophie Theisen)은 인간수명을 이

5) 이는 과학적 실험이 실재에 관한 지식의 탐구에 머물지 않고, 가능하다고 보이는 모든 것을 하려고 드는 “가능성의 기술”(Sgreccia, 2016, 97)을 우려한 것이다.

6) 넷플릭스가 발표한 조회수는 시청 수와 일치하지 않으며 시청 시간을 해당 작품의 상영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 수치이다(Süddeutsche Zeitung, 2023).

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 그녀의 수명이식 기술은 공여자와 수여자 사이에 “유전자가 서로에게 적합한 경우에(sofem die DNS kompatibel ist)”(Schwanitz, 2023) 수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sup>7)</sup> 에온은 인간수명 이식뿐만 아니라 공여자와 수여자를 찾아 연결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주도한다. 다시 말해 인간수명 이식은 에온의 주도로 공여자와 수여자 사이에 생명이 매매되는 행위이며, 그에 대한 대가는 금전적 보상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대한 에온의 광고는 공여자와 수여자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더 나은 삶을 꿈꾸십니까? 영원히 누릴 수 없을 것 같았던 삶을 원하십니까? 에온은 공여된 수명에 따라서 충분한 보상을 약속드린 시간 기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수명을 기증하고 꿈을 실현한 공여자가 이미 20만 명을 넘겼습니다. 기부한 시간만큼 풍요로운 인생을 돌려드리는 것이 저희 에온의 신념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선택하세요.<sup>8)</sup>

무엇보다 영화 <파라다이스>에서 에온은 인간수명을 독점적인 상품으로 공급하는 기업으로서 엄청난 수익을 보장받고 있다. 다만 이사회들의 구성원들은 수익의 상당 부분이 연구와 자선사업에 사용되는 것에 불만을 표출한다. 오직 조피 만이 연구 투자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유전자 일치와 상관없이 수명 이식이 가능한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고 역설한다.<sup>9)</sup> 이는 수명이식을 통해서

7) 영화에서 보여지는 인간수명 이식은 공여자와 수여자의 DNA 검사를 통해서 상호 적합성이 확인될 경우 공여자의 혈액을 수여자에게 수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과정이 이루어지면 수여자는 제공받은 수명만큼 젊음을 되찾고 공여자는 그만큼 노화된다. 영화에서는 수혈 장면으로 인간수명 이식이 마무리된다.

8) Boris Kunze(2023): Paradise, Netflix. (00:00:19-00:01:18) 이하 <파라다이스>의 원문은 괄호 안에 리닝타임(시간:분:초)으로 표기한다. Träumst du von einem besseren Leben? Einem Leben, das du dir nie leisten könntest? Aeon bietet ein Zeit-Spendenprogramm, das jedes gespendete Lebensjahr großzügig vergütet. [...] Mehr als 200.000 Spender haben schon Lebenszeit gespendet und damit ihre Träume verwirklicht. Wir bei Aeon glauben daran: Wenn du Zeit gibst, gibt das Leben etwas zurück. Entscheide dich für deine Träume.

9) 사실 조피가 개발한 수명이식은 우연한 연구의 결과이다. 그녀는 조로증에 걸린 딸 루시의 치

이미 젊음을 되찾은 에온의 이사들과 달리 그녀의 “희귀한 유전적 성향 (selten[e] genetisch[e] Disposition)”(00:22:56) 때문에 수명이식 공여자를 아직 특정하지 못한 결과일 뿐이지 그녀가 인류를 위한 연구와 자선사업에 진심이 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조피는 에온을 통해서 젊음을 되찾고 싶은 것이며, 이미 수명이식을 성공한 에온의 이사들은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영화 <파라다이스>에 나타난 인간수명 이식 기술은 이미 생물학적 유전학적 기능적 측면에서 인간 생명을 이용 및 통제 가능한 영역에서 도구적으로 상용화한 것이며, 타인의 생명을 상품처럼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인간수명 이식과 수명거래를 담당하고 있는 생명공학 기업 에온은 공익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보이고자 애를 쓰지만 인간수명을 상품화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쫓는 악탈적 기업일 뿐이다.<sup>10)</sup> 즉 “가난한 이들은 더 일찍 죽고, 부자들은 불멸의 꿈을 구매하는(Die Armen sterben früher, Reiche kaufen sich den Traum von der Unsterblichkeit)”(Schwanitz, 2023) 인간수명 이식은 에온의 달콤한 광고로 포장된 금전 만능주의 세상을 상징하는 혁신적인 상품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영화 <파라다이스>에 나타난 미래 사회는 인간 생명이 “기술 만능주의적 환상(technokratische Illusionen)”(Lettow, 2015, 35)과 돈이 우선하는 사회에서 부품처럼 활용되고 상품으로 전락한 디스토피아적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허구적이고 환상적인 미래를 나타내는 SF 장르를 통해서 현대사회

---

료를 위한 연구 중에 유전자 호환을 통한 수명이식 기술을 발견한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혁신적인 과학기술은 딸을 살려내지 못한다. 이후 그녀는 딸의 불치병을 치료하고자 했던 모성애 깊은 과학자에서 전 세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생명공학 기업의 수장이 된다.

- 10) 조피는 에온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인간의 힘으로 “시간을 되돌리는 것(die Uhr zurückdrehen)”(00:09:27)이 가능하며 모든 인류를 위해서 자신이 그 일을 해낼 것이라고 공언한다. 이를 위해서 조피는 에온에서 운영하는 루시 타이센 재단(Lucy Theissen Stiftung)의 수명이식 대상자에 “현재와 미래의 노벨상 수상자들을 수혜자 명단에 추가하겠다(jeden gegenwärtigen und zukünftigen Träger des Nobelpreises in unsere Empfängerkartei aufnehmen werden)”(00:08:14-00:08:18)고 약속한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조피의 수명이식 기술은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 아니며 에온의 이익에 부합한 소위 유용하고 능력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특별한 수혜에 불과하다.

의 과학기술주의 중심의 사고와 인간에 대한 가치와 존중의 의미를 되새길 필요를 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독일의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에서 역시 영화 <파라다이스>에 등장한 과학기술을 소개하며, 그와 관련된 인간의 욕망과 빈부의 차이로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주목한다.

넷플릭스 영화 파라다이스는 인간수명이 상품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준다. 가난한 사람들은 더 일찍 죽고, 부자들은 불멸의 꿈을 구매한다. [...] 무엇보다 영화 <파라다이스>에서 빈부의 차이로 발생하는 상황은 흥미로운 논쟁거리를 제공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가난해져서 결국에 그들은 자신의 수명 외에 어떤 것도 제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고 부자들은 그것을 취한다(Schwanitz, 2023).<sup>11)</sup>

이처럼 과학기술이 돈으로 환산되고 인간수명마저 상품이 되었을 때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조차 지키기 어려운 가혹한 선택 앞에 놓이게 된다. 이는 에온의 기증 매니저 막스가 가난한 불법체류자들이 거주하는 빈민촌을 방문해 18세에 불과한 데니스의 수명 공여를 설득하는 장면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막스는 우선 데니스의 수명 공여로 보상받을 수 있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가족들 앞에서 강조하며 더 많은 수명 공여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서 그는 데니스 가족의 불법체류 상황과 아버지가 작은 가게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언급한다. 망설이는 데니스에게 막스는 수명 공여로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액수 70만 유로를 말하며, 이를 통해서 시민권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참한 현실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다고 재차 강조한다. 하지만 18세의 데니스가 갑자기 33세가 되는 충격과 신체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20대의 젊음에 대한 상실감은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또한 막스

11) Der Netflix-Film "Paradise" zeigt, was passiert, wenn Lebenszeit zur Ware wird. Die Armen sterben früher, Reiche kaufen sich den Traum von der Unsterblichkeit. [...] Vor allem Letzteres schafft bei "Paradise" eine interessante Prämisse: Arme sind mittlerweile so arm, dass sie letztlich nur noch ihre Lebenszeit anbieten können - und die Reichen nehmen es an.

는 고민하는 데니스에게 수명 공여를 거부하거나 적은 연수를 계약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절망적인 현실을 말한다. 그의 가족이 시민권을 받지 못하고 추방될 수 있으며 현재의 빈곤 상태에서 영원히 헤어 나올 수 없을 것이라며 데니스를 압박한다. 결국 데니스가 수명 공여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미 예정된 일처럼 마무리된다. 그 결과 데니스의 수명을 공여받은 자는 젊음을 되찾고 이전에 비해서 월등히 나은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다. 이에 반해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수명을 팔아야 하는 데니스는 죽음에 더 가까워진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처럼 인간의 목숨이 오가는 상황에서 에온의 기증 매니저 막스가 약속한 바대로 인간수명 15년의 대가로 받게 될 70만 유로는 합당한 보상액이라고 볼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앞서 에온의 광고에서 강조한 것처럼 수명이식의 공여자와 수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 영화 <파라다이스>의 감독 쿤츠는 인터뷰에서 말한다. 먼저 쿤츠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든 행복한 순간은 반드시 함께 한다는 것과 불행한 상황 역시 살아가는 과정이며 포기할 수 없는 경험이라고 전제한다(Vgl. Armknecht, 2023). 이어서 그는 다른 사람에게 수명을 내어주고 대가로 무엇을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한다.

모차르트가 훨씬 더 오래 살았더라면 좋지 않았을까요? 어떤 식으로든 우리 모두가 이익을 얻었을 테니 말이지요. 하지만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서 빼앗는 것일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가치를 매기기 시작한다면..., 저는 그것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모차르트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치가 있을까요? 이러한 종류의 거래가 긍정적인 결과를 내려면, 돈이나 수명의 대가로 받는 것이 수명 그 자체만큼 정말로 아주 많은 가치가 있어야만 하겠지요. 누군가 이 돈으로 평생의 꿈을 이룰 수 있는데 이를 이루기 위한 다른 방법은 정말로 없다고 한다면 아마 그게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이 거래를 통해서 정말로 양쪽 모두가 더 행복해진다면 - 괜찮다고 생각해요. 나는 누구에게도 어떻게 행복해지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그것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 한쪽은 항상 불리하니까요(Ebd. 2023).<sup>12)</sup>

인간수명이 돈으로 환산되고 거래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은 영화 속 등장인물들 사이에도 등장한다. 그중에서 막스와 그의 장인 슈테판 사이에 벌어진 인간수명 거래에 관한 첨예한 견해 차이를 볼 수 있다. 막스는 가난한 사람들이 젊음을 팔아서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반해 슈테판은 부자들만이 천문학적인 액수로 젊음을 살 수 있으며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일찍 죽을 수밖에 없다고 반문한다.

슈테판: 유전자가 무슨 상관이야.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일찍 죽고 부자들은 점점 젊어지잖아. 그게 다 유전자 탓이야?

막 스: 그 덕분에 10년 전보다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훨씬 높아졌어요.

슈테판: 내가 지금 20살이 돼서 더 나은 생활 수준을 누리고 싶다면 자네가 나를 위해서 주선해 줄 수 있어?

막 스: DNA가 맞는 기증자만 구해 오신다면요.

슈테판: 그럼 그 사람한테 얼마를 줘야 하더러? 평생 번 것보다도 많은 액수인 걸 깜빡했군. 정직하게 벌어서 어렵도 없지. 이제 더 이상 가족 도살은 없어졌지만 인간들이 피를 빨리고 있어.

막 스: 그 피 빨리는 인간들 다수가 전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요. 빈민가를 벗어나 노이퀼른이나 프렌츠베어그(살기 좋은 동네)에 살며 직업을 얻고 가정을 이뤘죠. 젊음밖에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 그거라도 이용해서 이익을 보겠다는데 막나요(00:15:00-00:15:49)?<sup>13)</sup>

---

12) Wäre es nicht toll, wenn Mozart sehr viel länger gelebt hätte? Davon hätten wir ja alle in gewisser Weise profitiert. Das Problem fängt aber da an, wo etwas, das einem gegeben wird, einem anderen genommen wird. Wenn man anfängt, verschiedenen Menschen einen verschiedenen Wert beizumessen, finde ich das ganz schwierig. Ist ein Mozart mehr wert als andere? Damit ein solches Tauschgeschäft positiv sein kann, müsste das Geld oder das, was ich für diese Lebenszeit bekomme, wirklich so viel wert sein wie die Lebenszeit selbst. Wenn jemand durch dieses Geld seinen Lebenstraum erfüllen kann und es wirklich keine andere Möglichkeit dafür gibt, dann geht das vielleicht. Wenn wirklich beide Seiten durch dieses Geschäft glücklicher sind - meinetwegen.

또한 에온에 맞선 테러조직 아담 그룹(Adam Gruppe)의 수장 릴리스는 방송 인터뷰에서 “수명이증이 평등의 원칙을 해치는 구조를 만든다(Zeitspenden erschaffen ein System, das das Prinzip der Gleichheit aussetzt)”(00:10:51)고 주장하며 수명을 공여받는 행위를 타인의 수명을 훔치는 행위로 간주한다. 게다가 릴리스는 “수명을 재화로 만드는 자들은 인간까지도 재화로 만든다(Wer aus der Lebenszeit eine Ware macht, macht auch die Menschen zur Ware)”(00:10:54-00:10:58)고 경고하며 인류를 위한다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가난한 사람들의 목숨까지 노리고 있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이유로 아담 그룹은 수명이식을 받은 이들을 찾아내 처형한다. 더불어 노벨상 수상을 이유로 무상으로 수명이식을 받은 이들도 예외 없이 찾아냈고 살해했다. 결국 인간수명 이식은 타인의 수명을 구매할 수 있는 부자와 노벨상 수상처럼 탁월한 능력을 선보인 이들을 수혜자로 만들었으며,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을 궁지로 몰아세워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구조의 부속품으로 전락시켰다. 이는 우리 인간의 삶을 이롭게 하겠다는 과학기술이 경제적 이익에 매몰되고 빈부의 차이에 의해서 그 혜택이 차별되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결과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사회적 경제적 이유로 차별받음으로써 사회적 인격체로서 인간이 지닌 고유한 가치와 존엄에 심각한 위기가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미래의 허구적 이야기를 통해서 과학기술의 진보가 인간 생명을 어떻게 위협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현재의 시선으로 우

- 
- 13) Stefan: Na ja, Jetzt sind's die Gene. Wie kommt es dann, dass die Armen immer früher sterben und die Reichen immer jünger werden? Ist das auch genetisch festgelegt? / Max: Aus demselben Grund, warum die Armen heute einen höheren Lebensstandard haben als vor 10 Jahren. / Stefan: Wenn ich jetzt auch gern noch mal 20 wäre, um den hohen Lebensstandard zu genießen, kannst du das irgendwie für mich arrangieren? / Max: Wenn du einen kompatiblen Spender findest. / Stefan: Uns was müsste ich dem bezahlen? Hab ich ganz vergessen. Das kostet mehr, als man in einem Leben verdienen kann. Zumindest mit'nem anständigen Beruf. Tiere werden nicht mehr geschlachtet, aber Menschen werden ausgesaugt. / Max: Viele dieser Ausgesaugten sind heute viel besser dran. Statt im Getto leben sie in Neukölln oder Prenzlberg und haben Jobs und Familie. Wenn jemand nichts mehr hat, außer seiner Jugend, willst du ihm verbieten, davon zu profitieren?

리 앞에 벌어진 과학기술의 발달과정에서 인간 생명을 도구로 이용하고 돈으로 환산하는 주변의 다양한 사례를 되짚어 볼 수 있는 현재성도 함의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과학기술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간 소외를 막고 인간 생명을 위한 근본적인 윤리적 원칙과 실천적인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 IV. 인간 생명을 위한 윤리적 원칙: 자율성의 존중과 악행의 금지

현대사회에서 새로운 과학기술은 인류의 발전과 사회적 혁신을 이끌며, 동시에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다만 영화 <파라디스>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혁신적인 과학기술이 자본에 종속되고, 개인이 가진 사회적 경제적 배경에 따라서 그 혜택이 차별됨으로써 인간이 소외되고 인간의 존엄성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영화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인 데니스의 수명 기증 계약과 함께 리투아니아 난민캠프 인근에서 자행된 불법적인 수명이식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태롭고 극단적인 상태에 놓일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난민캠프 인근에서 벌어지는 불법적인 수명이식은 데니스와 같이 불법체류자들이 모여 사는 곳보다 더 폭력적이고 탐욕스럽게 운영되고 있다. 소위 그곳의 운영자들은 사전에 수명 공여자를 직접 데려오겠다고<sup>14)</sup> 약속한 이들과 미리 돈을 지급한 부자들을 대상으로 불법적으로 수명이식을 행하고 있다. 특히 밤사이 난민캠프에서 비밀스럽게 끌려온 어린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14) 막스는 리투아니아 난민캠프 근처에서 불법적으로 수명이식 시술이 행해진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엘레나와 함께 그곳으로 향한다. 그는 수명 공여자를 구매할 충분한 돈이 없었기 때문에 엘레나의 유전자와 호환되는 조피를 납치한다. 그런데 리투아니아로 향하는 도중에 막스는 그녀가 조피의 또 다른 딸이며 안전상의 이유로 외부에 전혀 노출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엘레나는 조피의 딸이 무고하다고 생각하지만 유전자 호환이 가능한 그녀를 돌려보낼 수 없었다. 결국 이곳에서 엘레나는 그녀를 이용해서 수명을 되찾는다.

부자들에게 수명을 강제로 빼앗기고, 운영자들은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챙긴다. 이를 통해서 부자들은 테러조직 아담의 처형 대상이 되지 않으면서 비밀리에 젊음을 되찾고, 전쟁과 배고픔에서 벗어난 아이들은 이유도 모른 채 죽음에 더 가까워진다.

이와 같이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되고 돈으로 인간의 생명이 거래되는 상황에 대해서 미국의 생명의료윤리학자 비첸(T. L. Beauchamp)과 칠드레스(J. F. Childress)가 제안한 윤리적 원칙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비첸과 칠드레스의 제안 중 “자율성 존중의 원칙, 악행 금지의 원칙”(구영모, 2010, 38)을 중심으로 인간 생명의 근본적인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되짚어 볼 것이다.

먼저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개인의 자율적 의사를 확인하고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인간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의료행위에 있어서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같은 책, 39)가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영화 <파라디이스>에서 데니스는 수명 공여로 받을 수 있는 금전적 이익 외에 신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난민캠프에서 끌려온 수명 공여자들은 수명이식과 관련된 어떤 언급도 듣지 못했으며, 이들에게 자율적 의사와 동의 역시 구해지지 않았다. 그로 인해서 이들은 얼마나 많은 수명을 빼앗길 것이며 그 대가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즉 에온의 기증 매니저 막스와 난민캠프에서 벌어진 불법 수명이식 모두 수명의 공여에 대한 “진정한 동의”(같은 책, 39)를 얻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당사자가 자율적 의사를 표명하지 못할 상황에 있거나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대리판단 표준”(같은 책, 40)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를 가장 잘 아는 대리인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당사자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원했겠는가”(같은 책, 40)에 대해서 대신 결정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데니스의 부모는 이미 아들의 수명공여로 얻을 수 있는 막대한 금액을 들었고 그것으로 불법체류 신분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그 결과 그의 부모는 18세에 불과한 아들의 수명 공여를 말리지 않았으며 암묵적으로 동의를 강요하는 듯한 모습을 숨기지도 않았다. 또한 난민캠프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결정을 대신해 줄 사람이 없거나 폭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들을 위한 최선의 이익을 찾는다는 것은 기대조차 어려운 일이었다. 즉 데니스의 서명으로 이루어진 수명이식과 난민캠프에서 발생한 일련의 행위들은 과학과 물질 만능주의가 밀접히 연결되어서 인간 생명의 본질적 가치와 존엄성을 어떻게 훼손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악행 금지의 원칙은 생명윤리적 관점에서 어떤 행위를 악행이라고 볼 것이며 어느 정도까지 범위를 악행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우선한다. 인간 능력의 한계로 빚어지거나 다양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잘못된 행동 역시 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간 행위의 양면성으로 인해서 당사자 상호 간에 긍정과 부정의 측면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적극적인 선행은 아닐지라도 명백한 악행과 그 행위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영화 <파라다이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화 <파라다이스>에서 에온의 광고에 따르면 수명 공여자와 수여자 모두에게 풍요로운 미래를 약속한다. 물론 수명을 이식받은 사람은 젊음을 얻으며 정당한 보상을 치렀다고 여길 것이다. 하지만 수명이식의 공여자에게 발생한 결과는 보상금으로 누릴 수 있는 풍요로움이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이른 죽음이다. 이처럼 인간의 목숨이 걸린 문제에서 죽음으로 귀결된 행위는 악행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가? 물론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 수많은 의료행위 중에 의도치 않게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환자를 죽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악행으로 여겨지지 않으며 행위의 정당성을 얻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항암 치료 중인 환자에게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한 시술을 취했다면 치료의 목적 외에 환자의 몸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때 의사는 부작용을 일으킬 의도로 의료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의사의 악행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자율적 동의를 얻었다면 부정적인 결과에도 행위의 정당성을 얻을 것이다. 이와 달리 영화 <파라다이스>에서 행해진 수명이식은 수명 공여자의 몸에 해악을 입히는 결과만 있을 뿐이다. 에온은 광고에서 “건강을 해치지 않는 최소한의 시술(minimalinvasiv[er] Eingriff)”(00:00:33)을 공언하지만 수명이식은 공여자의 목숨을 의도적으로 단축하거나 빼앗는 악한 행위이다. 게다가 이러한 악행이 돈으로 무마되거나 인간 생명이 수단으로 취급될 경우에는 빈부의 차이로 인한 비인간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그래서 인간 생명에 대한 윤리적 기본 방향과 실천적 방안을 위한 꾸준한 논의와 성찰이 필요해 보인다. 물론 인간 생명을 다루면서 매번 이러한 윤리적 원칙을 완벽히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며 이러한 원칙이 언제나 완전무결하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 다만 이를 지키지 않거나 소홀했을 때 인간 생명의 본질적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에 심각한 위기가 발생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 V. 결론

인간이 “사회적인 생산성·비생산성이라는 경제적 기준에 따라 등급”이 결정되거나 “자본의 힘에 따라 조작될 수 있는 도구처럼 취급”(박승찬, 2022, 33)되었을 때 인간 생명은 끝없는 자본의 탐욕에 종속될 수 있다. 쿤츠의 영화 <파라다이스>에서 불법체류 신분의 가난한 18세 청소년 데니스는 가족의 안전과 풍요로운 미래를 약속하는 에온의 기증 매니저 막스의 설득을 거부할 수 없었다. 그리고 단지 살기 위해서 난민캠프로 탈출한 수많은 이름 모를 어린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불법시술소에서 부자들에게 자신의 수명을 빼앗겼다. 심지어 엘레나는 에온의 대표 조피의 치밀한 계략에 빠져 자신의 수명 38년을 그녀에게 강탈당했다. 이들은 사회적 약자이거나 힘없는 평범한 시민들이며 이들의 수명을 앗아간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능력에서 월등

히 앞선 상태에 있다. 이처럼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들은 인간수명 이식이라는 혁신적인 기술의 수혜자가 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은 목숨을 착취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서 볼 때 과학기술의 발달이 인간을 위하고 이롭게 작용할 때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 생명의 참된 가치가 구현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인간 생명은 생의학과 생명공학 분야에서 방법론적으로 다루는 유기체가 아니며 결코 생물학적 기능적 합성물로 환원될 수 없는 본질적인 존재로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시장 논리로 취급되지 않으며 “사물화, 대상화할 수 없는”(홍석영, 2004, 230) 인간 생명은 우월한 가치를 지닌 사회적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할 것임을 의미한다.

**【주제어】** 사이언스 픽션, 파라다이스, 인간수명 거래, 자본주의, 생명윤리

[참고문헌]

- 구영모 (2010). 생명의료윤리. 파주: 동녘.
- 김상배 (2018). 인간생명존중 윤리의식의 제고 철학과 현실, 116, 78-93.
- 노양진 (2013). 몸이 철학을 말하다. 인지적 전환과 체험주의의 물음. 파주: 서광사.
- 박승찬 (2022). 철학적 관점에서 본 인간 생명의 존엄성 - 인간권과 인격 개념의 변화를 중심으로. 인격주의 생명윤리, 12(2), 19-79.
- 이군호 (2022). 권터 쿠네르트의 SF 단편 분석. 독일언어문학, 96, 111-132.
- 정재우 (2015). 생명윤리 성찰을 위한 우리 몸의 인간학적 의미 고찰. 인간연구, 28, 127-153.
-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2008). 생명과학과 생명윤리 - 철학적 성찰. 서울: 기쁜소식.
- 천현순 (2020). 현대 과학기술과 하이브리드 상상력 - 클라우드 프뤼아오프의 SF 소설 『게니온』에 나타난 신인간의 정체성 문제. 독어독문학, 155, 47-71.
- 최동민 (2021). 에른스트 윙어의 SF 소설 『유리별』 연구 - 윙어의 기술이론의 변화를 중심으로. 독일언어문학, 91, 261-282.
- 홍석영 (2004). 생명윤리와 인간학.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지, 7(2), 217-231.
- \_\_\_\_\_. (2006). 인격주의 생명 윤리학. 파주: 한국학술정보(주).
- Armknrecht, O. (2023. 7. 23). Boris Kunz [Interview] 출처: <https://www.film-rezensionen.de/2023/07/boris-kunz-interview/>
- Dickenson, D. (2008). Body Shopping. The economy fuelled by flesh and blood. 이근애 옮김(2012). 인체 쇼핑. 삶과 피로 돌아가는 경제. 서울: 소담출판사.
- Duke, E. A. (1995). Platonis Opera 1. 박종현 옮김 (2003). 플라톤의 네 대화편. 파주: 서광사.
- Fernsehen. Netflix-Film "Paradise" ist rund um die Welt ein Hit. Direkt aus dem dpa-Newskanal. (2023. 8. 16). Süddeutsche Zeitung. 출처: <https://www.sueddeutsche.de/medien/fernsehen-netflix-film-paradise-ist-rund-um-die-welt-ein-hit-dpa.urn-newsml-dpa-com-20090101-230816-99-854381>
- Jonas, H. (1997). The phenomenon of life: toward a philosophical biology. 한정선 옮김 (2001). 생명의 원리: 철학적 생물학을 위한 접근. 서울: 아카넷.
- Kunz, B. (2023): Paradise [Netflix movie]. Germany: Netflix.
- Lettow, S. (2015). Biokapitalismus und Inwertsetzung der Körper Perspektiven der Kritik. In Prokla: Zeitschrift für kritische Sozialwissenschaft(Hg.): Vereinigung zur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e.V. Heft 178 Nr. 1, Münster, 33-49.
- Schwanitz, J. (2023. 7. 27). Bezahl mit deinem Leben.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출처: <https://www.faz.net/aktuell/feuilleton/medien/netflix-film-paradise-bezahl-mit-deinem-leben-19060561.html>

Sgreccia, E. (2007). Manuale di bioetica 1/2. 정재우 옮김 (2016). 생명윤리의 이해 1/2. 서울: 가톨릭출판사.

## [국문초록]

독일의 영화감독 보리스 쿤츠는 그의 영화 <파라다이스>에서 근미래를 배경으로 현재까지 인류가 접하지 못한 인간수명 이식이라는 새로운 생명공학 기술을 선보인다. 인간수명 이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식자와 피이식자 사이에 유전자의 호환과 수여자가 공여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전적 보상이다. 영화에서 수명이식이 가능한 사람은 막대한 부를 가졌거나 노벨상 수상과 같은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이들에 해당한다. 결국 수명을 제공하는 이들은 가난하거나 난민과 같이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즉 영화에 나타난 혁신적인 과학기술을 통해서 다음의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인간 생명이 생물학적 유전학적 기능적 측면에서 이용 및 통제 가능한 수준에 있음을 가늠할 수 있다. 그리고 인간수명 이식 기술이 모든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며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인간수명이 거래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고려해서 이 글은 생명과학 기술의 발달과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서 인간 생명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현대 생명과학의 발전과정에서 인간 생명이 물질적 차원으로 다루어지고 수단으로 이용되는 방법론적 환원주의와 이론적으로 현대 과학 및 기술주의에 사상적 토대를 제공한 인간에 대한 이원론-기계론적 관점을 확인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쿤츠의 영화 <파라다이스>에 나타난 인간수명 이식이라는 혁신적인 생명공학 기술이 사회적 경제적 위치에 따라서 개별 인간의 수명을 도구화하고 상품화하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인간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을 인식하고, 인간 생명의 본질적 가치와 인간 존중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다.

[Abstract]

## Development of Biotechnology and Human Life

Jung, Youngho (Dankook University)

In his film *Paradise*, the German director Boris Kuntz presents a new form of biotechnology, human lifespan transplantation, which will enable a previously unknown human lifespan in the near future. This groundbreaking scientific innovation opens up the possibility of influencing and controlling human life on a biological, genetic and functional level to a previously unimaginable extent. However, the transplantation of living cells requires both genetic compatibility between donor and recipient and considerable financial means on the part of the recipient. This fact makes it clear that living donation is not accessible to everyone and is used according to market principles. Only people who have considerable wealth or who can demonstrate outstanding achievements, such as receiving a Nobel Prize, are considered for living donation. After all, living donors are often socially disadvantaged, such as the poor or refugees, and receive no social support.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essay will conduct a critical examination of the values and dignity of human life in the context of scientific progress and market-based materialism. For this purpose, the dualistic and mechanistic view of man that underlies modern science and technology is analyzed and possible situations and problems that can arise from the combination of scientism and market economy logic are discussed. In addition, the meaning of personality and human dignity is examined from a bioethical perspective.

**[Keywords]** Science fiction, *Paradise*, Life trading, Capitalism, Bioethics

논문투고일: 2024년 07월 09일 / 논문심사일: 2024년 08월 06일 / 게재확정일: 2024년 08월 27일

**[저자연락처]** figaro0505@hanmail.net